

대구주보

연중 제17주일

2009. 7. 26. (나해) | 제1631호



작품 : 우리는 하나님께 피어오르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2코린 2, 15)
전례꽃꽂이연구회 양월순(루치아)

오늘의 미사

입당송

하느님은 거룩한 거처에 계시네. 하느님은 외로운 이들, 한 집에 살게 하시고, 당신 백성에게 힘과 권능을 주시네.

제1독서 2열왕 4,42-44

화답송

◎ 주님, 당신 손을 펼치시어, 저희를 은혜로 채워 주소서.

제2독서 에페 4,1-6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그리스도, 우리의 병고 떠맡으시고, 우리의 질병 짊어지셨네.
- ◎ 알렐루야.

복음 요한 6,1-15.

영성체송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온갖 은혜 하나도 잊지 마라.

오늘에도 필요한 기적



박석재 가톨릭 신부
대덕성당 주임

사람이 빵으로 사는게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하신 예수님이시지만 배고픈 군중을 위해 빵을 많이 하신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이미 병자들을 치유하신 놀라운 능력을 본 군중들은 열광하며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자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군중들을 피하여 떠나셨고 집요하게 예수님을 찾아낸 군중들과 영원한 생명의 빵에 대한 논쟁을 벌이십니다. 결국 오천명을 먹이신 기적은 예수님의 의도와는 다른 결과로 이어졌지만 예수님께서 배고픈 군중을 측은하게 여기시고 그들을 어떻게 해서든 먹이고자 하셨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사람에게는 빵도 필요하고 말씀도 필요합니다. 먹지 않고는 살 수 없습니다. 당장 생계를 이어나가기 어려운 사람에게 삶의 의미나 고상한 정신이나 영혼의 구원이란 것이 얼마나 한가하고 허황된 말로 들리겠습니까? 만일 교회가 사람들의 구체적 삶에 더 관심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의 비참한 처지를 함께 나누며 대처할 수 있었다면 하느님을 적대하는 공산주의라는 괴물의 등장을 막을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가난한 이들을 축복하시고 함께 하셨지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날 같이 점점 더 치열해지는 경쟁사회에서 밀려나 비참한 처지로 전락하고 가는 이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로 눈을 돌려보면 그 양상은 더욱 심각합니다. 하느님이 보시기에 결코 의롭지 못한 세상입니다.

물론 사람이 빵만으로 살지 않습니다. 사람이 만드신 하느님 안에서 진정한 삶의 목표와 의미를 찾지 못하는 한 인간은 안식을 얻지 못합니다. 하느님의 말씀이 인간을 인간답게 합니다. 그러기에 더더욱 빵을 우상화하는 세상의 흐름에 휩쓸리지 않고 하느님의 말씀을 더 소중히 받들며 사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느님의 말씀 가운데서 어려운 처지의 이웃을 외면해서는 안된다는 말씀이 더욱 절실히 울리는 오늘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오천명을 먹이신 기적을 행하고 싶어 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한 사람이 가진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기꺼이 그 분께 내어드린다면 예수님의 기적의 힘을 우리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 시노드 마당

교구 2차 시노드 지표 “새 시대 새 복음화”에 대하여 (2)

임석환 스테파노 신부 / 교구시노드 사무국장

‘새 복음화’와 ‘선교’ 개념과의 관계

논문에서는 ‘복음화’ 내지 ‘새 복음화’가 복음 안에서 선포된 그리스도의 신비로 사람들을 인도하도록 하는 모든 그리스도교적 활동을 통칭하고, 그것이 복음 선포와 성사집행, 그리고 애덕의 증가로 이룩된다고 규정될 때, 이 개념은 교회의 본성으로 규정된 전통적인 ‘선교’ 개념과 본질적으로 다를 것이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새 복음화’가 ‘새로운 열의, 새로운 방법, 새로운 표현’으로 이루어지는 한에서 재래의 선교 활동 수행방법과 구별되는 면을 분명하게 드러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통적 선교 활동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을 그리스도에 의해 실현된 구원으로부터 배제되어 있다고 간주하면서 저들에게 구원의 진리를 일방적으로 선포하고 이를 수용한 사람들을 교회로 입교시키는 절차로 구성됩니다. 이러한 전통적 ‘선교’ 활동의 표현양식과 수행방법은 외부적으로 확인 가능한 성공도(예비자나 세례자 수)에 입각하여 수적으로 우위를 점하려는 패권주의의 취지를 부지불식간에 드러내어 왔다는 지적을 오늘날 종교계 내외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 복음화’는 대희년 교서 「제삼천년기」에서 강조되듯이, 역사 도정 안에서 교회와 신자들에게 의해 과거에 자행되었고 현재 자행되고 있는 복음적이지 못한 과오들에 대한 죄책을 과감히 인정하고 회개할 것을 반복해서 촉구함으로써, 교회의 내적 정화와 충실을 도모하여 교회의 면모를 일신하려는 쇄신의지를 결연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종교 신봉자들이나 타 문화인들과의 진솔하고 깊이 있는

대화를 통하여 하느님의 감추인 신비를 더욱 풍요하게 드러나게 하고 신앙의 심화가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인류와 세계의 공동선 증진과 구원을 위협하는 제반문제 해결에 공동으로 대처하려는 취지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복음화 활동의 일차적인 목표 또한 더 이상 세계 안에서의 종교적 패권을 지향하는 교회 부식(扶植)을 통한 양적 팽창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실현되는 평화와 연대, 정의와 자유 등의 보편 가치들에 기초하는 ‘사랑의 문화·문명’의 창출을 강조하는 데에서 드러나는 바와 같이, 복음진리의 생활화를 통한 교회와 인류, 그리고 세계의 내적 쇄신 내지 변형이 복음화 노력의 일차적이고 주된 목표로 설정되어 있음이 확실한 것입니다. 여기서 교회의 자기복음화와 외부 세계와의 대화와 협력을 통해서 ‘사랑의 문화·

문명’ 건설을 도모하는 ‘새로운 복음화’는 재래의 전통적인 ‘선교’ 자세에 비해 ‘새로움’의 실재를 확연히 드러내고 있음이 분명함을 강조합니다.

논문에서는 이러한 개념으로 ‘새 복음화’가 앞으로는 환경과 핵에너지 문제, 그리고 신자유주의 시장질서의 귀결, 사회질서의 문란, 공공기관의 역기능, 공직자들의 부패와 비리, 실업자 대책 등 사회와 세계 안에서 발생하는 대소규모의 공공성격의 사안 등 처럼 재래 선교활동이 취급하지 않았던 사회 구조와 시장경제질서, 생태계 위기와 상관된 사안들도 심도 있고 체계적으로 다루어질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청년 다니엘

윤지강 켄마 | 소설가

오랜만에 해질 녘의 명동 거리를 걸어보았습니다. 구두 뒤축에 프로펠러라도 단 듯 가벼운 발걸음으로 노점상과 일본인 관광객들, 청춘남녀로 혼잡한 거리를 마음껏 활보했습니다. 꽃무늬 스카프도 만져보고 색색의 티셔츠, 신데렐라 구두 같은 신발들도 구경했습니다. 앙증맞은 아기옷이 진열된 리어카 앞에서 제 발이 저절로 멈추어졌지요. 핑크 색 바지, 푸른 색 바탕에 전화기와 꽃이 수놓인 감쪽한 티셔츠를 골랐습니다. 노점상 청년이 제게 “신자세요?” 하고 물어옵니다. 어떻게 아느냐고 하니 제 목에 걸린 나무 십자가 목걸이를 가리킵니다. 그 목걸이를 보고 신자냐고 물어오는 사람은 처음이라 저는 고개를 들고 청년을 바라보았습니다. 로마로 성지순례 갔을 때 가이드해주신 신부님께 선물받은 것이라고 하자 청년은 자기도 신자라며 세례명이 다니엘이라고 말합니다. 이 옷은 수도원 신부님이 키우고 계신 아기에게 선물할 것이라고 하자 다니엘은 대뜸 물건값에서 3천 원이나 깎아주었습니다.

그 날 저는 명동성당에서 오체투지 순례단이 드리는 미사를 하고 나오던 길이었습시다. 지난 3월 28일, 충남 공주의 계룡산 중앙단을 출발한 순례단은 양 무릎과 팔꿈치, 이마를 땅에 대고 절하는 오체투지(五体投止) 방식으로 하루 약 4km씩 전진해 6월 6일 임진각 망배단에 도착하는 것으로 순례 일정을 모두 마쳤습시다. 신부님의 강론 중에 기억에 남는 말씀이 있습니다. 갓 돌이 지난 아기가 떡을 먹고 있길래 신부

님께서 조금만 달라고 하셨습니다. 아기는 말귀를 알아듣고 떡을 떼어주는데, 아주 손톱만큼 떼어주더라고요. 욕심이 많아서가 아니라 아기로서는 최대한 많이 떼어낸다는 것이 겨우 고만큰이었던 것이지요.

제게 물건값을 깎아준 다니엘은 노점상의 주인도 아니었습니다. 사장이 따로 있고 자신은 판매만 한다고 하더군요. 그런데도 신부님이 키우는 고아소녀에게 선물할 것이라는 제 말에 선뜻 거금(?)을 깎아준 것입니다. 그 돈은 풀잡이 아기가 떼어낸 떡조각처럼 아주 짝끔이지 모르지만 다니엘에게는 분명 작은 돈이 아닐 것입니다. 제 책이라도 나오면 보내줄까 해서 주소를 적어달라고 했지요. 다니엘은 초등학생보다 더 글씨를 못 썼습시다. 몇 글자 안 되는 주소를 겨우 겨우 썼습시다. 글씨를 잘 쓰지 못하는 것이 무안쩍은지 다니엘은 제게 자신이 교도소에서 세례를 받았고, 그곳에서 십 년을 있었다고 말합니다. 놀란 저는 다니엘의 얼굴을 좀더 찬찬히 보았습니다. 그는 얼마나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필경 채 스무살도 되기 전에 소년범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청춘을 보냈을 테지요. 그냥 가슴이 먹먹해져 전화번호도 적어달라고 했더니 주머니에서 꼬깃꼬깃 접힌 종이를 꺼내어 보여줍니다. 누렇게 빛바랜 종이꼬기리에 빼빼물 빼빼물 적혀 있는 다니엘의 사는 곳과 전화번호……. 저는 그 날 아주 목직한 마음으로 지하철에 올랐습시다.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그 목직한 것은 아름답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그림기도 한 그런 것이었습니다.

작은 나눔부터

박성규 엘리시오





영성의향기 성령

:: 일곱 가지 선물

성령의 일곱 가지 선물은 영원한 구원에 관한 것과 이 현세의 것에서 우리를 떼어놓고 하늘나라의 것을 사랑하게 하는 지혜와 종교의 진리를 깨닫게 하는 이해와 마땅히 해야 할 것과 행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 식별하는 사려와 하느님을 어버이처럼 만유 위에 사랑하는 효경과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여러 어려움을 무릅쓰는 용기와 하느님께서 모든 것 위에 계심을 알고 하느님의 뜻을 거스름까 염려하는 두려움과 믿어야 할 것과 믿지 말아야 할 것을 식별하는 지식 등 일곱 가지입니다. 허나 성령의 많은 선물을 오직 여기 일곱 가지에만 한정 시킬 수는 없습니다.



:: 성령은 어디 계실까요?

성령은 어디에 계실까요? 성령은 거룩하게 된 개인 안에 거처하실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항상 머무르십니다. 성령은 교회가 교회답게 존재하게 하고 활동하게 하는 분입니다. 진리의 성령께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진리를 제대로 깨닫게 하고 그리하여 교회가 믿음의 공동체로서 사랑을 잘 실천 하도록 하십니다. 또한 성령은 복음의 진리를 선포할 사람들에게 교회의 사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힘과 영감을 주고 필요한 카리스마도 줍니다. 예수님의 약속대로 성령계신 교회 안에서 늘 당신의 능력과 사랑을 드러내 보여 주십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거처하는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 권 가타리나 수녀 -

짧은 글 - 깊은 생각

사랑이란...



아빠와엄마, 그리고 일곱 살 난 아들과 다섯 살짜리 딸이 살았습니다. 어느 날 아빠가 아들과 딸을 데리고 등산을 가다가 그만 교통사고를 당해 아들이 심하게 다쳤습니다. 응급수술을 받던 중 피가 필요했는데, 아들과 같은 혈액형은 딸뿐이었습니다. 다급한 아빠가 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애야너 오빠에게 피를 좀 줄 수 있겠니?”

딸아이는 이 질문에 잠시 동안 무얼 생각하는 것 같더니 머리를 끄덕였습니다.

수술이 끝난 뒤 의사가 대성공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때까지 딸아이는 침대 위에 가만히 누워 있었습니다.

“네 덕분에 오빠가 살게 되었어!” 아빠의 말을 들은 딸이 낮은 목소리로 아빠에게 물었습니다. “왜 정말 기뻐요. 그런데... 나는 언제 죽게 되나요?”

아버지가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죽다니. 네가 왜 죽는단 말이나?”

“피를 뽑으면 곧 죽게 되는 게 아닌가요?” 잠시 숙연한 침묵이 흐른 뒤 아빠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난 죽을 줄 알면서 오빠에게 피를 주었던 말이나?”

“예... 전 오빠를 사랑하거든요.”



■ 교구설정 100주년 준비위원회

2009년 현재 대구대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1 - 신심단체

전광진 엘마노 신부 / 교구사목기획 실장



대구대교구 각 본당은 사목평의회와 재무평의회로 조직되며 평신도사도직을 수행하는 여러 단체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본당의 모든 평신도사도직단체는 본당신부님의 인준을 받고 본당신부님의 지도하에 제반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본당의 평신도를 대표하는 사람은 사목평의회 부의장인 총회장입니다. 각 대리구에서는 주교대리신부님의 감독하에 본당총회장단이 대리구 신하 각본당의 제반 사목활동을 논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대리구 대표총회장단은 교구의 전반적인 사목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대구대교구에는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산하에 평신도사도직을 수행하는 많은 단체들이 있습니다. 교구에서 활동하는 모든 단체는 교구장님의 인준을 받고 교구장님께서 임명하신 지도신부의 지도를 받아 활동할 수 있습니다.

2009년 현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지도신부는 김울석신부이고, 회장은 이해도 안젤로 형제입니다.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에는 신심단체와 액션단체로 나뉘어 있습니다.

1. 신심단체

1) **대구재속가르멜회** : 대구재속가르멜회는 가르멜수도원을 후원하는 단체로, 지도신부는 이석재신부, 회장은 남성자 글라라 자매입니다.

2) **그리스도공동체수련회(MBW)** : 1939년 이탈리아 예수회 롬바르디 신부가 시작한 운동인 MBW는 '보다 나은 세계를 위한 운동'이라는 뜻으로 교회가 형제애의 공동체로 변화하여 세상의 복음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운동이며, 지도신부는 최시동신부, 회장은 권정임 베로니카 자매입니다.

3) **꾸르실료사무국** : 1940년 스페인의 평신도 후안 에르바스에 의해 시작된 꾸르실료는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사도직을 자각하고 적극적으로 수행하려는 운동으로, 지도신부는 임석환신부, 주간은 이종희 가누도 형제입니다.

4) **레지오마리에 대구 '의덕의 거울' 세나투스** : 1921년 아일랜드의 평신도 프랭크 더프가 시작한 레지오마리에는 성모마리아를 모범으로 하여 특히 '기도와 선교 봉사'를 통해 교회발전에 기여하려는 운동이며, 지도신부는 하성호신부, 단장은 이해도 안젤로 형제입니다.

5) **마리아사업회(포콜라레)** : 1943년 이탈리아 평신도인 끼아라 루빅이 시작한 포콜라레는 사랑의 삶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려는 운동으로, 지도신부는 박영봉신부, 대표는 송두진 요한보스코 형제입니다.

6) **바뇌의 성모기도회** : 1933년 벨기에의 바뇌에서 발현하신 성모마리아의 메시지를 따르려는 모임으로, 지도신부는 허연구신부, 총무는 염정희 안젤라 자매입니다.

7) **선택** : 젊은이들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려는 운동으로, 지도신부는 문창규신부, 대표봉사자는 박해근 토마 형제입니다.



■ 시노드 마당

8) 성령쇄신봉사회 : 1960년대 미국 듀케인대학에서 시작된 성령운동은 성령의 힘으로 개인과 세상을 변화시키려는 운동이며, 지도신부는 박수태신부, 회장은 김병수 안드레아 형제입니다.

9) 성모기사회 : 1917년 막시밀리안 콜베신부가 창설한 성모기사회는 성모마리아의 보호 아래 죄인들의 회개와 갈라진 그리스도인들의 일치를 위한 운동으로, 지도신부는 임동빈신부, 회장은 임태남 루치아 자매입니다.

10) 재속 프란치스코회 : 재속 프란치스코회는 프란치스코 수도원을 후원하는 단체로, 지도신부는 임동빈신부, 회장은 정구성 에드몬드 형제입니다.

11) ME : 1958년 스페인 가블리엘 칼보 신부가 시작한 ME는 건강한 가정을 위한 운동으로, 지도신부는 나진흠신부, 대표부부는 정문원 미카엘, 상현숙 그레이스 부부입니다.

12) 지속적인 성체조배회 : 성체조배를 통해 더욱 깊은 신앙생활을 하려는 운동으로, 지도신부는 정기모신부, 총무는 이정숙 하비올라 자매입니다.

13) 파티마의 세계사도직 대구지부(푸른군대) : 1917년 파티마에 발현하신 성모마리아의 메시지에 따라 평화와 죄인들의 회개를 위한 신심운동으로, 지도신부는 이태우신부, 회장은 김기순 말가리다 자매입니다.

14) CLC : CLC(Christian Life Community)는 예수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일상생활에서 실천하고 나누기 위한 영성적 훈련과 생활실천을 위하여 생긴 단체로 지도신부는 김윤석신부, 회장은 윤진원 프란치스코 형제입니다.

15) 성서모임 : 교구 성서모임을 총괄하는 신부는 성서사도직 담당 심탁신부이고, 그 산하에 여자씨성서모임(책임수녀 류현숙 말가리다 수녀), 아버지 성경학교(책임수녀 전영순 에반젤린 수녀)가 있습니다. 젊은이 성서모임은 1976년에 창립된 빠스카 청년성서모임으로, 지도신부는 김병수신부, 대표는 이원호 아놀드 형제입니다.

<p>대한민국 한복명장 05~9호</p> <p>이명자 한복방</p> <p>-한산모시 직매점-</p> <p>이명자 (세실리아)</p> <p>(편수, 전행인복, 생활인복, 한산모시, 수의)</p> <p>☎ 교곡점 : 421-2828-7, 011-826-2827</p> <p>반월당 삼정 그린코아 APT 1층 상가(남쪽 115호)</p>	<p>허리 아프고~ 무릎 아플 때</p> <p>척추·관절전문</p> <p>참조은병원</p> <p>원장 배광주(레오) 원장 최은석</p> <p>원장 송대흠(요한) 원장 도홍직</p> <p>T. 630-8000 송현역 2번 출구</p>	<p>기도하는 성지순례단</p> <p>(주)성모여행사</p> <p>가톨릭성지순례전문</p> <p>서유럽, 동유럽, 이집트, 이스라엘, 터키, 그리스-매월 출발(성모 발현지)</p> <p>김안나</p> <p>053)639-0211, 011-9568-9436</p>	<p>씨푸드 패밀리 뷔페 레스토랑</p> <p>델리캐슬</p> <p>즉석에서 만든 150가지 요리!</p> <p>교우분 특별우대 할인 적용</p> <p>대표 박준근(에네오) 상무 박영철(가브리엘)</p> <p>반월당 동아쇼핑 12F전층</p> <p>Tel. (053)423-3003</p>
<p>여러분의 건강을 안심시켜 드리겠습니다.</p> <p>안심내과</p> <p><30년 전통의 (구)이상계 내과></p> <p>내과 전문의 5인 진료 765-3771</p> <p>심장·순환기, 소화기·내시경 전문</p> <p>공단검진, 5대암검진, 각종 종합검진</p> <p>들안길네거리~황금성당 사이</p>	<p>상인 행복을 심는 치과 *병원</p> <p>상인 롯데백화점 주차장 입구</p> <p>롯데리아 건물 5층</p> <p>T.633-7504/634-7504</p> <p>원장: 김원일(안드레아), 고상철(베드로), 권광</p>	<p>"내 손안의 성당"</p> <p>신자용 휴대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톨릭 대구지역 보급 시작(www.j2y.co.kr) 특장: 성경, 기도문, 예식서 등 휴대폰에 내장 성당, 성지, 성인, 주보, 매일미사 등 검색 가능 <p>신청문의 : 010-3174-5978</p> <p>대구시내 성바로말서원</p>	<p>닥터클리너</p> <p>Dr. cleaner</p> <p>해충방제, 건물종합청소관리, 냉·난방기기크리닝</p> <p>고객의 쾌적한 삶을 위한24시! Fresh your life!</p> <p>성요셉성당 김 귀 덕(요셉)</p> <p>Tel. 653-9901</p>

★ 모임행사 ★

92차 선택 주말

- 일시:8.14(금)-8.16(일),장소:꾸르실료교육관(교구청내)
- 대상:본당 내 만 19세 이상의 미혼 남녀신자 및 예비신자
- 신청:대구선택카페 신청란 <http://cafe.daum.net/daeguchoice>
- 접수:이재은 아가다 010-3811-0851
- 신청마감:8.7(금) 17:00까지(선착순 40명)

제3회 대구평화방송 사장배 배드민턴대회

- 일시:9.19(토),장소:대구시민체육관
- 참가요강:www.dgpbcc.co.kr 참조
- 문의:대구평화방송 251-2610

제12회대구대교구청년한창작생활성가경연대회

- 신청:9.30(수)까지 악보와테모CD동봉하여신청
- 예선심사:10.11(목)-10(토),심사발표:10.11(일)개별통지
- 본선워크숍:10.24(토)-25(일)본선일시:11.14(토)19:00
- 장소:대구시청소년수련원,문의:010-6566-8626
634-0653/sjp9113@nate.com 3대대구 청년담당

★ 성소 모임·피정 ★

하계 2박3일 성령세미나

- 일시:7.31(금)-8.2(일)
- 장소:한티 피정의 집
- 문의:성령쇄신봉사회 551-9111 선착순 마감

젊은이 2박3일 성령세미나

- 일시:7.31(금)-8.2(일)
- 장소:성령봉사회
- 문의:성령쇄신봉사회 551-9111

대구교교베네딕도수녀회 다락방성소모임

- 일시:8.2(일) 11:00 미사-, 장소:대구 본원
- 문의:010-8519-3431/313-3431

2009년도 하계 성소피정

- 일시:8.3(월)-5(수) 중1-고2, 참가비:6만원
8.11(화)-14(목) 고3·대학·일반, 참가비:7만원
- 신청마감:7.28(화) 17:00까지
- 문의:대구대교구 성소국 250-3071

거룩한 독서(Lectio Divina) 피정

- 소개피정:8.11(화)-12일(수)1박2일
- 성직·수도자피정:9.4(금)-11일(금)7박8일
- 문의:연화리피정의집 054-973-4835/011-542-4835

Msk젊은이 피정

- 일시:8.14.(금)-8.16(일),회비:2만원
- 장소:부산 한국의방선교수녀회 본원
- 대상:35세미만의 미혼여성
- 문의:011-9319-1690

성글름반 외방선교회 성소자 모임

- 일시:매월 첫째 일요일 10:00~16:00
- 장소:서울 돈암동 골룸반 선교센터 2층
- 대상:해외선교에 관심있는 28세미만의 젊은 남성
- 문의:전요한 신부 010-2895-6430

★ 모집 ★

효성유치원 서무 선생님 모집

- 업무:서무 선생님
- 근무시간:09:00~16:00
- 근무장소:효성유치원(칠곡3지구)
- 문의:313-1175

관덕정 영어 성경 공부반 모집

- 일시:8.4(화)10:00~12:00 화,목 강의
- 과정:탈출기(Exodus) 및 루카복음(Luke)
- 문의:254-0151/010-2578-5535

환경위원회 청찬프로그램 안내(253-3655)

- 일시:7.21(화)-8.25(화)6주과정(10:00-12:00,14:00-16:00)
- 장소:교구청 교육원 가동 2층 206호
- 회비:교포조합원(대구은행040-13-081023,환경위원회)

가톨릭여성교육관 수강생 모집(254-6115)

- 의사소통을듣는부모교육8.7(금)개강매주목14:00~16:00(주8만원)
- 감동변화치유꿈-창간기8.20(목)개강매주목14:00~16:00(주8만원)
- 재미있는사건활영7(월)개강매주월10:00~12:00(15만5천원)
- 재미꽃이 매주금 10:00~12:00(1년과정)반꽃이 매주금 13:00~15:00(6개월과정)

한국세실리아성음악협회 성음악 연주

- 일시:8.17(월)-20(목),장소:서울 가톨릭대학교
- 주제:2002년 로마 미사전례서 총지침
- 내용:그레고리오성가,오르간,지휘,발성,작곡등
- 강사:최호영 신부 외 17명, 회비:20만원
- 문의:02-338-8978/www.cecilkorea.org

제19회 여름 음악 학교

- 일시:8.21(금)-23(일),장소:경남 양산 정하상비오로영성관
- 주제:전공실기 심화학습 및 한국 성음악지침 해설
발성법,오르간(코드반주법),합창지휘법,그레고리오성가
- 교수:이성훈,양승엽,신경순,최근화,전화정,최명희,임석수,신부,윤용선,신부
- 수강료:16만원,문의:부산가톨릭 음악교육원 051-517-8241

★ 안 내 ★

성주 가톨릭 모원 분양

- 성주성당 묘지를 현대식으로 단장하여 분양합니다.
- 자격:성주에 연고가 있는 신자
- 문의:성주성당 054-933-3122

(국내입양전문)입양 및 미혼모 상담, 후원 상담

- 문의:02-764-4741-3/www.holyfac.or.kr
-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성가정입양원

미 사	일 시	장 소	미 사	일 시	장 소
구미지역 밀알후원회 미사	7월 27일(월) 오전11시	도량성당	교정사목후원회 월미사	7월 28일(화) 오후2시	성도당
4대리구 포항지역 성소후원회 월례미사	7월 27일(월) 오전11시	죽도성당	바노의 성모님 기도회 및 미사	7월 30일(목) 오전10시	성도당
경주지역 밀알 후원회 미사	7월 27일(월) 오전11시	성동성당	성모의 기사회 미사	8월 1일(토) 오전10시 30분	월배성당 내 수도원
			푸른군대 첫 토요신심미사	8월 1일(토) 오후2시	성도당

365일 24시간 서비스 요양기관
방문요양 · 방문목욕

- ♣치매, 중풍,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
- ♣가정방문하여 하루도 빠짐없이
- ♣부모님처럼 돌보어드립니다.
- ♣정부가 지원 85% 지원합니다

사 랑 제 가 요 양 기 관
대구전지역 791-7772 신안수
경산전지역 856-7243 사도요한

경일신경과·내과의원

뇌졸중(중풍)·치매·조기진단 ★성인병검진
(어지럼증, 두통, 손발저림 진단 및 치료)
홍플러스 내담점(구.형제(예식장) 맞은편)

대표전화 053)652-2525
www.kinm.co.kr

27년 전통의 숙련된 기술
한 독 보 청 기

나노기술, 디지털보청기 전문

(053)257-8500, 253-7476
방 프란치스코 (교우님 우대 할인)
중앙네거리 ↔ 만경관 사이 지하도 입구

한길기획 대표 이호민 (사도요한)

교회관련 인쇄물 · 광고 · 기획
리플렛 등 인쇄 판공물의 모든 것

252-7654 011-538-7754

계산오거리 국민은행 1번출금
가톨릭대학교 | 한길기획 | 지저택 | 남문사거리 | 1.영덕
가톨릭대학교 | 한길기획 | 지저택 | 남문사거리 | 1.영덕

내시경센터 · 검진센터
하나종합내과
(구 도재육내과)

무통(수면) 위/대장내시경(용종절제)
성인병검진, 5대암검진, 종합검진
한강 허성욱(가대오), 조규현, 도재욱

예약 ☎ 655-7890
호텔 크리스탈 옆 / 지하철 2호선 반곡역역 3번 출구

대구안과 의원

(수술전문인사, 인내수정체삽입술(근시교정)
초음파, 백내장(노안 및 난시교정)

원장, 전문의 이 호 성 (아우구스티노)
원장, 전문의 조 영 수 (다미아노)
전문의를 장 우 호, 이 동 수

위치 : 서부정류장과 세강병원사이
Tel. 053) 651-2233

포항e병원(노인요양병원)

- 치매 증후 뇌경색환자 요양전문
- 노인성 질환, 말기암 요양전문
- 신경과 전문의, 내과 전문의 진료
- ※치매 증후는 신경과 전문의에게 진료받아야 합니다.
- 입원상담 : 김석효 018-454-2234

명이한의원

원장 류정화 소화내과사

성심껏 케질별로 치료해 드립니다.
(성당주공거리)
두류시장입구 대구은행4층
☎ 053) 627-1075